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장애 정치와 취약성의 윤리

엄 미 옥*

차 례

1. 서론
2. 기계와의 불화와 치유폭력
3. 불구화된 사이보그와 장애 정치
4. 상호의존과 취약성의 윤리
5. 결론

국문초록

김초엽은 과학과 기술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 당사자들의 경험에 주목하면서 SF소설을 통한 사고실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본고는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장애의 양상을 통해 장애와 기술의 관계를 살피고 나아가 사이보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장애 정치와 취약함의 윤리를 고찰했다.

먼저 「인지공간」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지 공간에 진입할 수 없는 이브를 통해 손상을 장애로 만드는 정상성이 사회문화적으로 다르게 구성됨을 보여준다. 「프레모사」에서 유안은 재활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하지만 결국 도약과 정지의 위계가 전도된 프레모사를 선택함으로써 치유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강사

폭력에 저항한다. 이러한 반치유 서사를 통해 비장애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장애를 가진 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대안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김초엽 소설은 기계와 불안전하게 의존하는 인물을 통해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정치를 실현한다. 「로라」에서 로라는 트랜스에이블드로서 장애와 비장애의 전환을 평등하게 만드는 장애 정치를 행한다. 「마리의 춤」은 모그들이 플루이드라는 기술과 협상하고 서로 연대함으로써 장애 프라이드 운동을 벌인다. 여기서 불구화된 사이보그는 트랜스휴먼의 낙관을 실현하는 신화화된 사이보그가 아니며 정상성을 횡단하기 위해 신체의 고통을 삭제하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와도 차이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선인장 끌어안기」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장애를 가진 인물과 인물, 장애 인물과 비장애 인물이 사랑하고 돌보는 세계를 통해 상호의존의 윤리를 성찰한다. 인간 향상의 기술보다 인간 존재의 취약함을 응시하고 상호의존에 의해 다양한 몸이 있는 그대로 세계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장애를 가진 몸의 취약함이 제기하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장애, 장애 정치, 불구, 사이보그, 치유폭력, 취약성, 상호의존

1. 서론

이 글은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장애의 양상을 살피고 작가가 궁극적으로 장애 정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윤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장애를 가진 인물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면서도 주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장애는 주로 도덕적 결함과 관련되거나 수전 손택이 말한 질병의 은유처럼, 공포를 나타내는 은유¹⁾가 되었다. 또한 자율성과

1) 어맨다 레덕, 김소정 역,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을유문화사, 2021,

독립성의 상실을 상징하고,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와 결합하면서 타자성의 형상으로 재현되어 왔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인물은 최근 SF에서 적극적으로 소환된다.

SF는 다른 존재들을 중심에 두는 이야기이자 세계를 재설계하는 상상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고실험의 장으로, 소외를 논하는 가장 최적의 장르²⁾이기 때문이다. SF는 근대에 인간중심의 위계질서 속에서 소외되었던 비인간 기계, 로봇, 외계인, 식물, 동물 등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와 공진화를 재현하는 포스트휴머니즘³⁾ 서사이기도 하다. 여기서 장애를 가진 인물은 소외의 측면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과 기계의 결합으로써,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해체하는 포스트휴먼 신체의 관점에서도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이는 트랜스휴머니즘⁴⁾이 대

84-85쪽.

- 2) 김원영·김초엽,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350-351쪽.
- 3) 포스트휴먼이란 “현생인류가 인간종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 이체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이러한 “포스트휴먼을 긍정하고 지향하는 사조이자 운동”이 곧 포스트휴머니즘이다. 요컨대 인간 존재는 “휴먼(현생 인류)-트랜스휴먼-포스트휴먼”의 단계로 변모해 가며, 포스트휴먼의 단계에 가면 그 존재는 더 이상 현생인류로서의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김건우,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아카넷, 2016, 31-32쪽. 한편 포스트휴머니즘이 단순히 트랜스휴머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근대 휴머니즘에서 정의되는 휴먼의 개념, 즉 인간중심주의, 유럽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백인 중심주의적인 인간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개념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104쪽. 또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경계를 재정의함으로써 인간중심의 위계를 해체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다양한 타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혼종적 인간/비인간-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삶의 문법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상규, 「포스트휴먼 담론과 SF의 포스트휴먼 서사」, 『교양교육과 시민』 4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21, 54쪽.
- 4) 닉 보스트롬은 트랜스휴머니즘을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함으로써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과 그 바람직함을 긍정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김

표적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생명공학기술, 수명연장, 인체냉동 보존술, 프로스테시스,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슈퍼지능, 업로딩 등과 같은 인간 향상 기술로써 질병과 노화, 기능성의 제약과 같은 결함이나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연장과 영생을 꿈꾸며 인간의 본성을 변형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종으로 인위적으로 진화시키고자⁵⁾ 하는 이념과 운동이다.

장애를 가진 몸은 트랜스휴머니즘의 향상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특히 생체공학 기술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된 장애인을 사이보그처럼 묘사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기술적 보철에 의존해왔던 장애인을 사이보그의 원형처럼 상상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향상기술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장애의 극복’만큼 유용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⁶⁾

트랜스휴먼의 인간 강화와 향상 기술은 김초엽 소설에서도 장애를 가진 몸과 함께 서술된다. 대표적으로 의족과 의안, 의수, 그리고 전뇌와 유전자 조작 등의 모티프로 등장한다. 특히 의족과 의수 같은 기계와 결합한 장애 인물은 사이보그로 재현된다. 하지만 김초엽의 작품에서 사이보그 형상은 기술적인 매개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을 넘어선 행위능력을 지닌 존재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또한 “이식장치를 몸의 일부로 느끼”고 사이보그를 자연스럽게 정체화하는 케빈 워릭⁷⁾이나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를 횡단하기 위한 이미지, 서구의 근대적 가치체계가 배태한 이분법을 교란하는 기표”⁸⁾로 강조되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와는

건우, 앞의 글, 29쪽.

5) 신상규, 앞의 책, 2014, 73-99쪽.

6) 하대청, 「슈퍼휴먼이 된 장애인」,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아카넷, 2016, 134-135쪽.

7) 최초의 사이보그로 불리는 워릭은 정교한 칩을 자신의 팔에 이식하고 그것을 중추신경계에 연결하고 그 칩의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장치함으로써 자발적인 사이보그가 된다. 그는 인간이 기계와의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능력을 향상하여 사이보그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영의, 「사이보그: 인간에서 초인으로? 기계가 된 인간」, 신상규·이상욱·이영의 외, 『포스트모던이 몰려온다』, 아카넷, 2023, 64-65쪽.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자율성과 행위능력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증강을 강화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입장이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정상성을 해체하는 해러웨이의 입장과 달리 김초엽의 작품은 신체와 기술 사이의 양가성을 드러내고 불구화된 장애 정치를 실천하는 사이보그의 복잡성에 주목한다. 한편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신체 결합을 제거하고 향상을 도모하는 인물을 다룬 작품에서도 트랜스휴머니즘의 낙관적인 이상은 비판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초엽 작품에 등장하는 사이보그 형상과 유전자 조작 등 트랜스휴머니즘 향상 기술의 한계도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김초엽은 후천적인 청각 장애인으로서 선천성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장애를 가진 김원영과 함께 장애 당사자로서의 관점을 담아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김초엽은 “장애인은 기술을 이용해 자기 삶을 변형한다는 측면에서 사이보그의 최전선에 있다”⁹⁾라고 말한다. 김원영 또한 “장애인의 경험을 사이보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는 “결핍의 회복이 아니라 신체의 재구성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¹⁰⁾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장애를 가진 몸이 포스트휴먼 상황에서 기술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성찰하는 것으로, 김초엽 작품에 나타난 장애와 사이보그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유효한 참조점이 되리라 본다.

요컨대 김초엽은 과학과 기술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 당사자들의 경험에 주목하면서 SF소설을 통한 사고실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장애의

8)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딧세이』, 휴머니스트, 2019, 65-66쪽.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에서 사이보그 형상이 인간/기계의 경계를 비롯하여 여성과 남성의 젠더나 동물과 인간 등 종의 구분 같은 휴머니즘적 경계를 해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기존의 지배 서사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 기술, 경제, 정치적 관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신상규, 앞의 논문, 52쪽.

9) 임지영, 『모든 사람에게 사이보그 속성이 있다』, 『시사인』, 2019.9.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55>>(2025.3.23.)

10) 김원영·김초엽, 앞의 책, 52-55쪽.

양상을 통해 장애와 기술의 관계를 살피고 나아가 사이보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장애 정치와 취약함의 윤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김초엽 소설을 연구한 논의는 많지만 그의 작품에 나타난 장애 혹은 장애와 기술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황지선은 「장애-사이보그: 불화의 상상력과 타자-되기」의 윤리에서 2010년대 SF를 대상으로 장애와 과학기술이 결합하는 양상과 의미를 규명하며 도래할 몸의 형상과 그 윤리적 가능성을 조망¹¹⁾한다. 그 결과 장애 주체를 소환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밝히는데, 이 논의는 2010년대 생산된 다양한 여성작가의 SF를 대상으로 한 점과 크립 사이보그의 관점에서 장애인 사이보그의 형상을 다룬 최초의 논의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김초엽 소설로 「최후의 라이오니」 한 편만을 언급하고 있어 본격적인 김초엽 소설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최일섭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비전과 소수자의 역습」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비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김초엽의 「로라」와 「마리의 춤」에 나타난 신체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살핀다. 나아가 여기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기획이 어떻게 굴절되는지¹²⁾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트랜스휴머니즘 담론연구에 치중하고 작품 분석은 그 담론의 한계를 예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쉬움이 있다.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과 장애」에서 김윤정은 김초엽 소설이 장애에 대한 확장적 사고를 보인다고 하면서 이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의 윤리성과 포스트휴먼 주체로서의 저항성과 전복성을 고찰¹³⁾했다.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김초엽 소설과 장애를 다룬 것으로, 장애와 기술과의 관계뿐만 아니

11) 황지선, 「장애-사이보그: 불화의 상상력과 타자-되기의 윤리」, 『한국문예창작』 21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179-202쪽.

12) 최일섭,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비전과 소수자의 역습」, 『인문학연구』 66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141-181쪽.

13)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77-107쪽.

라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장애인에 주목하여 장애 재현의 윤리를 성찰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하지만 포스트휴먼의 윤리적 측면을 전제로 작품을 해석하다 보니 작품에 나타난 장애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설명이 아쉽고 사이보그의 전복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인다. 김초엽 소설에 재현된 사이보그는 정상성을 횡단하는 포스트휴먼 주체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기계화 불화하며 장애를 가진 몸의 취약성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장애의 양상에 주목하고 사이보그의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정치하게 규명할 것이다. 나아가 기술과 신체,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차별과 권력 구조를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인물들의 장애 정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가장 최근의 논의인 최세훈의 「크립사이보그'(crip-cybog)'로서의 장애 신체·정신」은 김초엽의 「로라」, 『프레모사』,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소설에 나타난 정치적 형상들을 ‘크립 사이보그’로 명명하고 이들이 행하는 비장애중심주의적 정치성을 탐구¹⁴⁾한다. 이 논의는 ‘크립 사이보그’에 깊이 천착한 점과 이를 통해 사이보그화된 장애형상을 정치적으로 사유하려는 시도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크립사이보그의 이론과 그것을 작품해석에 적용한 정치적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실제로 장애에 대한 탐색은 소외된 점이 있다.

본고는 위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서 김초엽의 장애가 집중적으로 그려진 작품을 대상으로 장애의 다양한 재현 양상을 살피고, 장애 정치를 통해 제기되는 윤리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사이보그 이미지와 기술 그리고 장애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한계와 진정한 포스트휴머니즘의 윤리가 무엇인지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14) 최세훈, 「크립사이보그'(crip-cybog)'로서의 장애 신체·정신- 김초엽의 「로라」, 『프레모사』,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68집, 반교어문학회, 2024, 257-279쪽.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취약함이 가르쳐주는 윤리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¹⁵⁾

2. 기계와의 불화와 치유폭력

장애학에서 장애의 정의는 손상과 장애 사이의 구분에서 출발한다. 손상은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기능의 손실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혹은 생리적인 조건을 말한다. 장애는 손상 혹은 그것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반응으로 인해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무능력함을 지칭한다.¹⁶⁾ 한 사회의 정상적 혹은 수용가능한 몸의 개념은 정상성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신화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진다.¹⁷⁾ 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¹⁸⁾을 따르는 것으로,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지 공간」에서 이브는 허약한 신체 때문에 인지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이브는 “아주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 더딘 성장을 보이다가 어느 시점부터 또래 아이들과 현저한 신체적 차이를 보인다. 이브의 몸은 “부서지기 쉬운 몸”, “깨질듯한 연약함”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신체

15)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허블, 2019), 「인지공간」(『방금 떠난 세계』, 한겨레, 2021), 「#cyborg_positive」(『행성어 서점』, 마음산책, 2021) 「선인장 끌어안기」(『행성어 서점, 마음산책, 2021), 「로라」(『방금 떠난 세계』, 한겨레, 2021), 「마리의 춤」(『방금 떠난 세계』, 한겨레, 2021), 「프레모사」(현대문학, 2021).

16) Ronald J. Berger, 박승희 외 역, 『장애란 무엇인가』, 학지사, 2016, 34쪽.

17) 수전 웬델, 황지성·김은정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44쪽.

18)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한 개인의 손상 혹은 적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장벽들, 즉 접근 가능하지 않은 빌딩, 교통과 의사소통의 제한된 방식들, 편견 어린 태도들 등이 장애를 중속적인 사회적 위치와 낮은 가치의 삶의 경험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Ronald J. Berger, 앞의 책, 66-67쪽.

적 조건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다. 서술자 ‘나’는 또래에서 가장 키도 크고 몸집도 크다는 이유로 이브를 보호하는 존재가 된다. 이 작품에서 인지 공간은 거대한 격자 구조물로, 가치 있는 인류 공동의 지식과 의미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 공간은 사고를 실체화하는 매개체이자 유기체 뇌의 한계를 넘어 지식이 영구적으로 보관되도록 돕는다. 오직 인지 공간을 통해서만 지식은 전승되고 남게 되는 것이다. 수전 손택은 『은유로서의 병』에서 “세상은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모두가 이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은 보통 건강한 자의 나라에서 시민권을 상실하게 된다”¹⁹⁾라고 말한다. 이브는 격자 구조물에 진입해서 이동하기에 부적합한 몸으로 판명되어 인지 공간에 들어갈 시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내용을 배울 수가 없어서 인지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이브를 동정하지만 오히려 이브는 공동체의 평균 지식만을 생산하는 인지 공간이 사실은 매우 불완전하며 개별적 기억과 진실을 억압하고 배제한다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이브는 ‘스피어’라는 자신만의 인지 공간을 만들어 각자의 인식과 기억이 더해진 공간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보편적인 진실이 억압해 온 개별적 진실을 좇아 인지 공간 너머 우주의 무한함에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나’는 인지 공간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적 능력이 엄청나게 확장된 사실에 만족하고 인지 공간의 관리자가 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이브가 죽고 난 후 스피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인지 공간을 떠나야만 진짜 세계를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브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를 떠난다. ‘나’는 이브가 남긴 스피어가 “진리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종류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여기서 스피어는 인지 공간에서 소외된 이브가 창

19) Tobin Siebers, 조한진 외 역, 『장애이론』, 학지사, 2019, 133쪽.

조한 ‘불구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적 기준에 미달해 비정상적으로 규정되었던 몸 덕분에 이르는 공동의 인지 공간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개별적 인지 공간을 상상할 수 있었다. 불구의 공간인 스피어는 장애를 지닌 몸의 역설을 드러낸다. 나아가 신체적인 허약함을 장애로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표준의 몸이라는 장벽을 세우고 그 범위 밖의 사람들을 밀어내는 세계를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인지 공간」이 사회적 모델에 의해 구성된 장애를 그린다면 「프레모사」는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를 재현한다.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환경보다는 개인적 몸의 한 성질로 정의하며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손상의 원인, 진단 예방 및 처치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둔다.²⁰⁾ 이 모델은 장애가 있는 몸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몸, 건강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몸,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몸으로만 바라본다.²¹⁾ 또한 장애와 질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환경을 바꾸는 일보다 치유를 우선시한다.

「프레모사」는 무용수인 유안이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폐허가 된 이르술의 프레모사를 관광하는 재난투어 서사이다. 여행자들이 이 재난투어에 신청한 이유는 끔찍한 비극 이후 신체가 좀비처럼 끔찍하게 변이된 귀환자들이 프레모사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헬렌, 레오, 탄, 이시카와 유지와 같이 유안과 한 팀이 된 여행자들은 모두 프레모사의 비극을 직접 목격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프레모사의 귀환자들은 비록 건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오히려 프레모사는 죽음과 절망의 땅이 아니라 활력과 생동감이 느껴진다. 예상과는 다른 풍경에 의문을 품던 유안은

20) 미셸푸코에 의하면 의료적 모델은 의료적 전문가들에 의해 운용되는 재활적 처치라는 처방된 계획에 순응하는 “유순한 몸들”을 양산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Ronald J. Berger, 앞의 책, 65쪽.

21) 수나우라 테일러, 이마즈 유리·장한길 역, 『집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 봄, 2020, 53쪽.

레오와 함께 프레모사의 깊은 마을 숲으로 진입한 후 귀환자들이 커맨드에 중독된 채 암시에 걸려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조종하는 진짜 귀환자들을 발견한다. “흙과 모래 먼지와 인간의 피부가 하나가 되어 반쯤 살아있는 석상처럼 끔찍해 보이는 몰골”을 한 귀환자들은 “말라비틀어진 고목”에 가까웠다. 마치 기형적인 괴물을 연상시키는 그들은 “홍축한 외모에 발성기관이 손상되고 느린 물질대사와 호흡”으로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신체로 그려진다. 이들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국제구호단체의 설득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삶의 권력을 고정된 것들이 쥐고 있다. 이른바 “움직임과 멈춤의 질서가 뒤바뀐 공간”인 것이다. 도약보다 정지를 정상으로 여기는 프레모사를 유안은 마치 자신의 고향처럼 느끼고 귀환자들을 찾아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유안은 유명한 무용수였지만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채 신경 의족을 달게 된다. 그러나 다리를 잃은 후에도 잃어버린 다리가 아직도 허벅지에 매달려 있는 환지통에 시달린다. 그녀는 춤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주위의 기대 때문에 의족과 원래의 다리가 충돌하는 감각과 날카로운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재활훈련사이자 연인인 한나는 유안에게 “회복력”을 믿으라며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한다. 한나가 유안에게 치유된 몸, 능력이 있는 몸으로 복구하기를 강요하는 재활 장면은 이른바 치유폭력²²⁾을 잘 보여준다. 한나는

22) 김은정은 “치유는 병이 낫고 장애가 없어지는 개별적인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몸을 포섭하거나 밀어내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담론으로 작동한다”라고 주장한다.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역,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10쪽.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는 “타자를 소위 나아지게 해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타자가 지닌 차이를 지우려는 힘의 행사를 묘사하기 위해 ‘치유폭력’을 사용한다. 즉 치유폭력은 “치유가 장애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고 치유과정에서 그 대상을 파괴할 때 일어난다. 치유와 관련된 폭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첫째, 장애와 질병을 삶의 다른 방식으로 보는 여지를 없애는 폭력, 둘째, 치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장애인들에게 신체적·물

주위 사람들의 치유평력에 의해 수치심과 모멸감까지 느낀다.

사람들은 나를 무대로 다시 불러줬다. 그들은 내가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던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정상에서 추락한 무용수가, 고통을 딛고 또 한 번 정상으로 오르는 이야기를 원했다. 사람들은 나를 앉혀놓고 끔찍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리고 나를 무대로 보내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눈부신 도약을 펼치라고 했다. 나는 그것을 제법 잘 수행해냈다. 수술과 재활로 진 빛을 모두 갚았고 3년에 한 번씩 의족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나는 나의 고통을 팔아서 생존했고 때로 그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모멸감을 잊기 위해 더 많이 도약해야 했다. (167-168쪽)

인용한 부분은 유안이 장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소비되는 장면이다. 프레모사를 관광하던 주연도 유안의 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칭송한다. 한나 또한 유안이 금속 다리로 구두를 신고 춤추는 모습과 도약하는 모습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한다. 강인한 의지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애인을 찬양하는 이러한 슈퍼 불구 서사는 비장애중심적 표상을 잘 드러낸다. 또한 슈퍼 불구 서사는 장애를 개인적인 비극으로 간주하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개인의 초월적 역량을 강조²³⁾하기 때문에 취약하고 손상된 몸, 의존하는 몸에 대한 혐오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몸에 대한 옹호를 강화한다. 따라서 슈퍼 불구 서사는 치유평력을 정당화한다. 한편 치유평력은 현재의 삶을 유예하고 그 대신 장애와 질병을 극복한 미래만을

리적으로 가하는 폭력을 말한다. 그리고 치유평력은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에 대한 정상성의 기준에 따라 몸의 변화를 유도해서 규범적인 몸을 만들어낸다. 김은정, 위의 책, 38-39쪽.

23) 슈퍼 불구 서사는 대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개인의 초월적 역량을 강조하는 이른바 ‘장애인 영웅담’의 형식을 취한다. 수나우라 테일러, 이마즈 유리·장한길 역, 앞의 책, 50쪽.

상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유안에게 아픈 몸의 현재를 오롯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의족을 한 유안의 몸은 신체의 일부를 기술적 보철로 대체한 사이보그로서 인간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전환하는 트랜스휴먼의 기획을 잘 보여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해 인간 본성과 존재의 경계를 과감하게 해체하지만 인간의 독립성과 행위능력은 여전히 규범으로 고수한다.²⁴⁾ 비록 유안은 보철 다리의 도움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지만, 기계와 몸의 결합은 매끄럽지 않고 자주 불화한다. 기계 다리의 결합 부위와 맨살이 연결된 경계에서는 피가 자주 흐르고 의족과 잃어버린 다리가 충돌하는 감각과 날카로운 통증²⁵⁾에 시달리는 등 의족에 적응하기 힘들다. 유안은 차라리 보조기기가 없을 때 더 온전하다고 느끼고 무대에서 보철 다리를 뽑아서 던져버리는 상상을 하곤 한다. 따라서 유안은 몸의 정상성에 대한 갈망보다 “흔들림도 뒤틀림도 없는 부동의 장소”, “움직임이 없는 몸”, “모든 것이 멈춰 선 몸”을 꿈꾼다. 즉 환지통도의 의족에 의한 통증도 없는 세계, 정상성에 대한 강요가 없는 세계를 욕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도약과 정지, 정상과 비정상의 위

24) 트랜스휴머니즘은 정상을 넘어선 향상의 필요성, 정당성을 논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상성이나 주체성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관념, 즉 정상성의 헤게모니를 강화한다. 사이보그 장애인은 이런 점에서 전형적이다. 행위능력이 신장되고 의존성이 해소된 근대적 휴머니즘의 이상적 인간으로 부활한 장애인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하대청, 「휠체어 탄 인공지능: 자율적 기술에서 상호의존과 돌봄의 기술로」, 『한국과학기술학연구』, 19권 2호, 한국과학기술학회, 189쪽.

25) 유안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동안의 고통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이제 나는 한 사람을 위해 춤을 춘다. 나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사랑하는, 나의 도약을 사랑하는 한나를 위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에, 살점과 이물질 사이에 고통이 파고든다. 그 전기신호들은 끊임없이 속삭여 나를 신경쇠약에 걸리게 한다. 넌 나를 지울 수 없어. 그림자 다리가 말한다. 종소리처럼 울리는 통증에서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고통 사이, 흔들리는 몸을 바로 세운다. 그리고 다시, 피부 표면을 칼로 베어내는 듯한, 세포 하나하나를 날카로운 핀셋으로 떼어내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찾아온다. 한나, 제발 나에게 멈추라고 말해줘.” 김초엽, 『프레모사』, 현대문학, 2021, 13-14쪽.

계가 전도된 프레모사에 남기로 한 결심은 바로 치유폭력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치유와 극복만이 최선이라는 폭력에 저항할 때에 비로소 장애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대안적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cyborg_positive」에서 사고로 눈을 잃은 리지는 아이보그사의 인공 눈을 장착한 사이보그다. 그녀의 눈은 아이보그를 장착한 이후 더욱 아름다운 눈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리지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인공눈 리뷰 영상을 보고 기계 눈의 아름다움에 열광하고 그녀는 아이보그사의 모델 제안을 받는다. 아이보그사에서는 단순히 제품 홍보만이 아니라 리지와 같은 “사이보그 휴먼의 긍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개최하고자 한다. 즉 “사이버네틱스 신체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긍정함으로써 사이보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기계 눈은 감염 위험도 없고 인간의 눈보다 편리한 점이 많으며 유기체보다 더 아름답고 기능 면에서도 증강된 향상 기술로 보인다. 리지 또한 이제 “인류는 사이보그를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이보그를 찬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그녀는 장애인 사이보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이보그를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장비로 광고하는 미디어의 전형적인 문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리지는 유기체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동경할 때마다 낮은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은 원래의 몸과 자주 불화하는 기계 때문이다. “기계 눈에 짓눌린 피부 안쪽에서는 자주 진물이 흘러나오”고 새 모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무 번도 넘게 피팅을 해야 한다. 리지는 이처럼 기계와의 융합이 매끄럽지 못한 경험을 통해 사이보그에 대해 무조건 긍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리지가 홍보하는 기계 눈을 통해 예뻐지고 싶다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면서 “모든 사이보그는 아름답다는 말이 정말로 사이보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보그사의 홍보모델 수락을 거절하면서 작품은 끝난다.

여기서 리지는 주류매체에 등장하는 아이보그 등 보조공학의 광고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보그를 장애를 극복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랜스휴먼의 표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한 환상을 경계하고 기계와 불화하는 유기체 몸의 현실에 주목하며 인간과 기계의 연결을 손쉽게 찬양하지 않는 것이다.

3. 불구화된 사이보그와 장애 정치

「로라」에서 로라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실재하는 두 팔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 세 번째 팔을 감각하고 이로 인한 환상통을 겪는다.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고유수용감각이 어긋나 불일치의 감각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처럼 불일치 감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지도와 현실의 몸을 일치시키기 위해 스스로 눈을 멀게 하거나 팔을 절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로라는 절단이 아니라 세 번째 팔을 욕망한다. 진은 이러한 로라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녀와 비슷한 증상을 지닌 사람들을 취재한 후 ‘잘못된 지도’라는 책을 출간한다. 진이 만난 사람들 중 몸 정체성 통합장애를 겪는 이들은 신체 지도와 실제 신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쾌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신체를 절단하기도 한다. 한편 세계트랜스휴먼 연합 회원들은 신체를 변형하고 개조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들은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서 엄격한 법률규제를 비판하고 ‘신체 증강 기술’을 합법화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 목표는 더 나은 기능을 추구하며 기존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로라가 세 번째 팔을 원하는 것은 뇌의 잘못된 지도와 몸의 불일치를 신체의 변형을 통해 바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몸 정체성 통합장애를 지닌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리고 신체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한다는 점에서는 트랜스휴먼 연합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모두 완전히 로라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진은 이러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후 과잉사지를 경험하는 로라의 신체에 내재된 불쾌감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로라의 내면은 이해할 수 없다. 로라는 이윽고 세 번째 팔을 다는 수술을 감행한다.

세 번째 팔은 오른쪽 어깨 부근의 근육과 신경에 연결되었는데, 로라가 그 팔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것이 애초부터 인간에게 없는 신체 부위를 연결했기 때문인지 혹은 후천적으로 연결된 팔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신경 접합 부위를 덮은 인공 피부에서는 자주 진물이 흘렀고, 징그러운 흉터가 생겼다. 팔을 수시로 닦아주어야 해서 결국 인공 피부를 반쯤 벗겨냈다. 로라는 기계 팔의 외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무거운 세 번째 팔 때문에 자주 균형을 잃었고, 염증으로 고생했다. 나중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팔의 기능마저 저하되었다. 의사는 기계 팔을 떼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로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 번째 팔을 가진 채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로라에게 세 번째 팔은 증강도 향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몸에 대한 훼손이었고 차라리 결함을 갖기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123-124쪽)

로라는 환상지 통증을 없애는 치유를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느껴지는 감각에 따라 세 번째 기계 팔을 다는 수술을 받는다. 이는 형태적으로는 증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를 선택한 것이다. 로라의 욕망은 “신체적 비장애 상태에서 신체적 장애 상태로 전환하려는 욕구나 열망인 트랜스어빌리티”로 볼 수 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을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사회에서는 장애가 없는 몸에서 장애를 갖게 되는 전환(트랜스어빌리티)과 장애가 있는 몸에서 장애가 없는 몸으로의 전환(치유)이 대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몸에 대한 능력주의 관점 때문에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트랜스에

이블드의 요청은 대개 비이성적으로 여겨지고 거부된다.²⁶⁾ 따라서 상당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자력으로 시도하는데, 진이 만난 몸 정체성 통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로라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치유폭력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전환을 중립적이고 평등한 영역 사이의 이동으로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치유를 트랜스어빌리티와 나란히 놓고 생각해보면, 장애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성은 바람직하다는 신념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²⁷⁾ 이 작품에서 로라는 트랜스에 이블드로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전환을 평등하게 만드는 장애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나아가 로라는 트랜스휴먼의 증강을 비판하는 불구화²⁸⁾된 사이보그로 기능한다.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사이보그는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

26) 김은정, 앞의 책, 34-35쪽. 트랜스에이블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그들의 욕망에 언어를 부여할 때 가장 흔히 마주하는 것은 혐오와 분노, 불신이다. 의료산업 복합체는 소위 ‘문제가 있는’ 그들의 몸-마음에 신체 통합성 장애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그들을 분류하고 병리화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나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임신시킬 확률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사람들로 치부된다. 다양한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뒤에도 선별적 임신 중지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전히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인식된다. 세상은 장애아동을 입양하거나 위탁 양육하려는 사람들을 자선 사업에 참여하는 순교자로 취급한다. 백인 서구사회에서 장애를 선택하는 일은 결코 중립적인 일, 내지는 단순히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 될 수 없다. 일라이 클레어, 하은빈 역, 『눈부시게 불완전한』, 동아시아, 2023, 228쪽.

27) 김은정, 앞의 책, 35쪽.

28) 불구화된 사이보그는 사이보그를 불구화된 입장에서 다시 상상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맥루어는 페미니스트와 퀴어 이론으로부터의 통찰력을 장애학에 적용해 “크립이론”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진전시켰다. 즉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한 사람들이 긍정적 정체성으로 “퀴어”란 용어를 전유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장애인이 “절름발이gimp” 혹은 “불구자crip”와 같은 용어들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유했다. Ronald J. Berger, 앞의 책, 33-34쪽. 많은 장애인들이 “불구”로서 자신을 정체화하는데, 어떤 것을 불구로 만든다는 것은 꼭 그것을 부순다는 뜻이 아니라, 장애의 역사, 정치, 자부심을 가지고 장애에 창조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자립, 정상, 의료화의 패러다임을 문제 삼는 행위이기도 하다. 수나우라 테일러, 앞의 책, 2022, 51쪽.

이고자 하는 휴머니즘적 주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존재방식이다. 한편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는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인 정보과학 시대의 잡종적인 주체성을 상징한다.²⁹⁾ 이 작품에서 세 번째 기계 팔을 달아 사이보그가 된 로라는 인간이 지닌 신체의 한계를 넘어선 증강된 사이보그도 아니고 해러웨이가 말한 탈인간중심적인 혼종적인 주체로서의 사이보그³⁰⁾만도 아니다. 로라는 인공문처럼 기계와의 접합 부위에 피부 손상과 염증이 생기고 팔의 무게 때문에 자주 균형을 잃는 등 팔의 기능마저 저하된 사이보그이다. 다시 말해 「로라」에서는 보철물이 사이보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장비의 가치로 몸을 정상화하지도 않는다.³¹⁾ 또 기술과 신체의 연결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현실에 주목함으로써 신화화된 사이보그로 재현되지 않는다. 자신을 사이보그라 칭한 토빈 시버스는 현실의

29) 김원영·김초엽, 앞의 책, 103쪽.

30) 엘리스 케이퍼는 해러웨이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장애와 장애 있는 몸을 탈정체화한다고 지적한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에서 “하반신 마비나 기타 중증의 불리함이 있는” 사람들은 복합적인 혼종화의 경험을 가장 강렬하게 겪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해러웨이는 그 강렬함에 주목하면서 장애를 사이보그적 경계 흐리기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로 꼽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모범적 사이보그임을 은연중 드러낸다. 그러나 “불리함이 있는”이라는 표현은 장애의 개별적, 의료적, 자선적 모델에 빠져 모든 장애인이 적응형 장비에 획일적으로 얽매어있는 것으로 만들고 장애인의 경험이나 관점에 대한 무관심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해러웨이가 표현하는 사이보그 정치에서 장애나 장애 있는 몸은 능동적인 참여자로 해석하기 어렵다. 해러웨이는 장애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에서 파생될 잠재적 통찰력을 인정하고 장애를 ‘유기체적 전체론’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지만, 장애를 단일하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보는 획일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또 해러웨이는 장애인을 모범적인 혼종으로 제시하지만 그 혼종화가 어떤 느낌인지 혹은 어떤 결과를 수반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다. 장애인과 장애의 경험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 엘리스 케이퍼,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 봄, 2023, 286쪽.

31) 기술 찬양의 뉴스들은 첨단 기술이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연민과 차별은 장애의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엘리스 케이퍼, 위의 책, 275쪽.

고통을 삭제하는 사이보그는 고통에 대하여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능력 이데올로기에 기여하고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며 그들의 고통과 희생의 이야기를 무력하고 믿기 어렵게 만든다³²⁾라고 비판한다. 이 작품에서 로라로 표상되는 사이보그는 트랜스휴먼의 낙관을 실현하는 사이보그도 해러웨이의 혼종성만을 강조하는 사이보그도 아닌 불구화된 사이보그이다. 즉 기술적 교정을 찬양하는 방식을 경계하고 현실의 통증과 목소리를 삭제하지 않으면서 장애를 가진 신체와 기술과의 복잡한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치유와 증강이 아닌 결함과 훼손을 선택한 로라는 이러한 기술과 신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나아가 트랜스에이블로의 전환을 통해 비장애중심주의의 정상성을 해체하는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정치를 실현한다.

한편 이 작품은 장애 당사자인 로라의 내면보다 그녀를 목격하는 진의 시점에서 서술된다. 로라의 연인인 진은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작품 마지막에서 진은 H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 비록 로라에 대한 이해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이는 마치 독자들이 진과 같은 비장애인의 위치에서 장애 당사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장애의 목격자가 되는 위치로 소환하기 위한 장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32) 토빈 시버스는 현재의 몸 이론가들이 신체의 물리적 자원을 재구성하거나 즐거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방법으로 고통과 장애를 제시한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물건-보철물, 휠체어, 보조기, 기타 장치-은 잠재적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인간 형태의 유연성의 놀라운 예 또는 임파워먼트의 장치로 간주된다. 중증 장애를 사이보그 하이브리드화의 가장 강력한 사례로 드는 해러웨이는 정보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와 신체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범주로 보철장치를 간주한다. “보철물은 기호작용, 즉 초월이 아닌, 동력으로 증진된 의사소통을 위한 의미와 몸의 제작”이라고 설명한다. 토빈 시버스는 해러웨이가 “권력과 능력에 너무 몰두하여 장애가 무엇인지 잊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사이보그는 항상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보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한다. Tobin Siebers, 앞의 책, 116-117쪽.

「마리의 춤」은 마리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강사인 ‘나’의 시점에서 시지각 장애를 가진 모그라고 불리는 사이보그들이 연합하여 장애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여기서 서술자 ‘나’ 또한 「로라」에서 진과 같이 장애를 지닌 인물의 경험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실패한 테러리스트가 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마리를 회상한다. 처음 무용을 배우겠다고 온 마리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마리는 시지각 이상증을 겪는 모그였기 때문이다. 모그들은 시각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이상이 없지만 개별적인 자극을 하나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조합하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마리는 공간상에서 위치 좌표를 알려주는 감각 보조장치 ‘플루이드’를 두개골 안쪽에 심어서 움직인다. 모그들은 전뇌 증강 기술을 이용해 살아가는 사이보그인 것이다. 마리는 폭이 좁은 섬세한 동작을 어려워하고 시선 처리를 가장 어려워하지만 플루이드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춤 동작을 익힌다. 그들은 상시 접속상태에서 플루이드를 통해 외부의 시각 정보를 다른 감각 정보로 변환하여 전달받을 수 있었다. 변환의 과정은 온라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활용해 감각 정보들을 다른 모그들과 교환할 수도 있다. 마리는 친구들과 함께 기존에 사용된 플루이드를 개선해서 자기수용감각, 즉 공간상에서 몸의 위치를 인지하고 신체를 제어하는 감각을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는 플루이드로 개발하는데 성공한다. 즉 플루이드는 모그들이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설계하고 개발한 기술이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 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건설하는 기술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크립 테크노 사이언스³³⁾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모그들은 기계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장애를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수용하고 장애 경험에서 나온 지식으로부터

33) 크립 테크노사이언스는 기존의 지식생산과 소비라는 구도를 뒤집는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건설하는 기술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김원영·김초엽, 앞의 책, 2021, 187쪽.

터 플루이드를 개발한 사실에 자긍심을 가진다. 이는 “플루이드는 모그가 된다는 게 결핍이 아니”라, “변화”이자 진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마리의 발화에서도 확인된다. 나는 모그가 결핍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는 정상성 규범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마리의 권유로 플루이드에 접속한 후 변화한다.

수많은 목소리. 그것이 플루이드의 첫 인상이었다. 추상적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었다. 분홍색, 푸른색, 연보라색의 안개가 나를 통과해 갔다. 모든 방향에서 모든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사람들은 그곳에 없다가 목소리를 얻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현재 시점에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처해왔던 어떤 구획이나 분리된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 그들은 구체적인 형체 대신 구체적인 목소리를 갖는다. (82쪽)

나는 모그들과 달리 이런 형태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았다. 순간 마리가 왜 자신들의 소통방식을 더 진보한 것으로 여기는지 알 것 같았다. 공간 속에서 모든 목소리가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었다. 그들이 불필요한 감각 정보를 버리고 추상의 세계로 뛰어들었을 때, 나는 눈을 감고도 여전히 시각 정보를 기다리는 불완전한 존재였다. 아무리 집중해도 그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89쪽)

인용문은 서술자가 플루이드라는 새로운 감각의 도구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다. 모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어떤 구획이나 분리된 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하면서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서로 충돌한다. 서술자는 이를 ‘새로운 감각’이자 ‘새로운 소통방식’이라고 평가한다. 플루이드로 접속한 세계에서는 시지각 이상이라는 감각장애가 정상성 규범에 의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치를 지닌 동등한 감각들로서 신체적 다양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들과 같은 감각 정보를 가지지 못한 나는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데, 비

장애인인 나의 제한된 감각이 오히려 장애가 됨을 보여준다. 모그들의 대화는 마치 수어 공동체 문화를 연상하게 만든다. 농문화 정체성을 지닌 농인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언어적 소수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³⁴⁾ 즉 농인은 청능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 농을 얻은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농인 스스로 수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지닌다. 이들은 다른 민족적 집단들이 그들의 언어 및 문화적 유산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³⁵⁾ 여기서 농인들은 장애를 긍정적으로 전유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모그들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애에 대해 일종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

마리는 플루이드의 도움을 받아 모그들과 함께 반격을 감행한다. 대규모 페스티벌의 특별 무대에서 공연하는 중 마리는 무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 전환 물질이 담긴 안개를 흩뿌리는 테러를 한다. 그동안 모그들만 일방적으로 세계의 질서에 맞추어 살아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마리의 반격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다소 비판받을 소지는 있지만 그녀는 전환을 통해 자신들을 정상성 규범으로 낙인찍고 억압해 온 세상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관객 대부분이 시지각 이상증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장애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다시 시각을 회복했지만 모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는 비장애인들이 모

34) Susan Baglieri · Priya Lalvani, 박승희 외 역, 『비장애중심주의를 넘어』, 피치마켓, 2023, 262쪽.

35) 매사추세츠 주 케이프 코드에 해안 앞 섬인 마서즈 비니어드에서 농인 문화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Deaf)은 17세기 초에 유전적 특성으로서 이 섬에 들어왔다. 비교적 고립된 인구 사이에서 근친결혼은 유전적 농을 보통 이상의 높은 비율로 이끌었다. 한번은 마서즈 비니어드의 모든 주민이 청력 손상이 있던 없든 수화로 말을 했는데, 이러한 문화는 본토와 섬 사이에 더 많은 이동성에 의해 약화될 때까지 대략 200년 동안 원래대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Ronald J. Berger, 앞의 책, 71쪽.

그들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감각을 경험한 후 시지각 장애가 결핍이 아니라 다르게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플루이드를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어떤 소통 형태”라고 평가하는 서술자의 마지막 발화는 이처럼 세계를 다르게 경험하는 장애와 더불어 살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요컨대 「마리의 춤」은 모그들이 크립 테크노 사이언스로서 플루이드라는 기술과 협상하고 서로 연대함으로써 장애를 긍정적으로 전유하는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정치를 보인다. 마리는 전환의 방법으로 억압적인 비장애중심주의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장애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몸과 감각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하게 만든다.

4. 상호의존과 취약성의 윤리

김초엽의 소설은 장애 인물과 기계가 서로 의존하면서 불구화된 사이보그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장애를 가진 인물과 인물 그리고 장애 인물과 비장애 인물 사이에 의존을 그리고 있다. 「선인장 끌어안기」는 파히라를 간병하는 보조 로봇의 시점에서 서술된다. 파히라는 유능한 건축가였지만 수술 휴유증으로 접촉통증 장애를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는 스물네 시간 고통에 시달린다. 따라서 파히라의 집은 물체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파히라는 집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이보그이기도 한데, 휠체어에는 파히라와 특수 소재 좌석 사이에 비접촉증을 만들어내는 부속장치가 붙어있다. 보조 로봇이자 서술자인 나는 센서를 통해 파히라의 상태를 인식하고 분석한 후 그의 기분을 맞추는 등 마치 상대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도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에게 나는 여섯 번째 보조 로봇이다. 지난 반년간 파히라는 네 개의 보조 로봇을 파손시켜 갈아치우는

등 폭력적으로 변했다. 나는 로봇은 부서져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파히라의 말에 로봇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 뒤 파히라는 폭력적인 행동을 멈춘다. 파히라는 자신의 고통과 통증에 빠져 그동안 로봇을 훼손하고 학대했던 것이다.

파히라는 어떤 물체와도 접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사막의 압축된 풍경”처럼 많은 선인장을 심고 가꾼다. 그가 선인장을 키우게 된 이유는 후원하던 보육원에서 만난 소영이 때문이다. 소영은 파히라와 같은 접촉 증후군으로 또래 아이들로부터 배제된다. 그런데 파히라와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잘 알면서 의존하게 된다. 소영은 자신과 파히라의 관계를 마치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쉽게 꺼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멋있는 선인장”과 같다고 말한다. 파히라가 정원과 집 한쪽 공간에 선인장을 잔뜩 심게 된 이유이다. 파히라는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온 소영이를 집으로 들이게 된다. 그러나 서로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족과 친구처럼 지내던 소영은 늦게 발견한 병으로 사망한다.

“죽음을 앞두고 그 애는 말했어. ‘파히라. 내가 당신을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딱 한 번만요.’ 나는 팔을 벌려 그 애를 안았어. 끝까지 안고 있었지. 비명을 참고 눈물을 참으며, 피부 표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랑일까 생각하면서. 의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나를 그 애에게서 떼어냈을 때 나의 얼굴은 고통으로 마비되어 있었고 시트는 눈물범벅이 되어있었어. 그리고 그 애는 십 분 전 숨을 거둔 상태였지. 그때 나는 불행히도 나에게 고통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30쪽)

인용문처럼 파히라는 죽어가는 소영을 끌어안은 채 고통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고통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소영과 파히라는 접촉 증후군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가 의존하면서 돌봄을 주고받으며 기쁨과 행복을 향유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혹은 보조 로봇과 장애인 사이의 돌봄 형태와는 다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수평적 정체성”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에게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서로가 없으면 수평적 정체성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³⁶⁾ 그들은 수평적 정체성 속에서 장애를 공유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서로의 고통과 취약함을 이해하고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파히라는 ‘진공의 집’ 같은 공간에 선인장을 심고 가꾸는 기쁨과 삶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는 작품 결말에서 소영을 잃은 후 집에 가득하던 선인장을 처분하고 먼 곳으로 떠나고 마는데, 이는 그에게 사랑의 상실과 결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준다. 요컨대 「선인장 끌어안기」는 인간 존재를 향상하는 기술은 특수 제작된 금속 휠체어와 보조 로봇과 같은 보조장비와 돌봄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상호의존에서 나온다는 점을 역설한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도 사랑과 상호의존의 윤리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다층적인 서사구조로 짜여 있다. 겉 이야기는 서술자 데이지가 시초지인 지구로 향하면서 소피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서술된다. 데이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열여덟 살이 된 아이들이 이동선을 타고 시초지로 순례를 떠나 일 년 후에 돌아오는 성년식을 치르는 관습이 있다. 그런데 지구로 간 순례자들이 절반이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데이지는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지구로 향한다. 이러한 순례 의식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릴리와 그녀의 딸 올리브이다. 속 이야기는 올리브의 시점으로 마을의 진실과 자신의 엄마 릴리 다우드나의 행적을 좇아 지구로 가서 그녀가 겪은 일이 서술된다.

지구의 이타사에서 올리브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얼룩 때문에 마을에

36) 이러한 수평적 정체성의 예로 농을 가진 장애인과 그들의 문화를 들 수 있다. 에바 페더 키테이, 김준혁 역, 『의존을 배우다』, 2023, 164쪽.

서와 달리 혐오와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타사 도시 외곽에는 올리브와 비슷한 결함을 가진 비개조인들이 살고 있다. 비개조인들은 자신이 “지능이 낮거나 외모가 흉측하거나 키가 작고 왜소하거나 병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타사는 신체적 장애의 유무에 의해 공간이 구획되는 분리주의 정책을 고수한다. 도심은 결함이 없고 정상적인 개조인들의 구역으로 도시 외곽은 결함과 장애를 지닌 비개조인들의 구역으로 철저하게 구분된다. 개조인들의 도시가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비개조인들이 사는 외곽은 버려진 이들의 세계, 다툼과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절망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장소성은 신체적 차별과 배제 의한 격리를 보여준다.

이타사에서 유일하게 올리브를 경멸하지 않는 사람인 델피는 실패한 개조인이다. 델피의 부모는 유전자 기술을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태생적 문제와 성적 결함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유전자 지문을 바꾸는 기술을 했지만 부작용으로 청각장애를 얻는다. 델피는 릴리 다우드나의 존재를 알고 있다. 릴리 다우드나는 엘리트 과학자였지만 익명의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로 변신한 후 후성 유전적 변형을 통제하여 인간 배아 디자인 기술을 완벽하게 행한다. 그리하여 당시 설계된 아이들이 한 세대를 이룰 만큼 “아름답고, 유능하고 질병이 없고 수명이 긴”, “신 인류”를 창조하게 된다. 릴리의 배아 디자인은 생명기술을 통한 인간 향상을 실현한 예로써 인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이상을 잘 보여준다. 다음은 릴리가 왜 인간배아 디자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릴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릴리에게는 나와 같은 질환, 얼굴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흉측한 얼굴을 남기는 유전병이 있었다.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릴리의 얼룩이 특별한 정보값을 갖지 않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었지만 지구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릴리를 마음껏 멸시하고 혐오할 수 있는 하나의 낙이었다. 이민자의 딸, 그리고 흉측한 외모를 가진 음침하고 삐쩍 마른 소녀, 릴리는 생애 초반

기에 어느 누구와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한 듯했다. 릴리는 스스로를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병을 가지고도 그대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릴리의 부모는 가난했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유전병 사전진단을 전혀 받지 않았다. 사전진단에서 해당 질환이 정말로 정말로 발견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릴리는 모든 문제가 자신이 태어나기로 결정된 그 순간에 있다고 생각했다. (44-45쪽)

릴리는 이민자의 딸이자 유전병으로 인한 얼굴의 얼룩 때문에 혐오와 멸시 속에서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낙인찍는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나 마음을 향상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옹호한다. 아이의 출산을 위해 새로운 의학적 재생산 기술을 활용하고, 자식들이 갖게 될 특성을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녀의 형질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러한 입장은 일종의 자유주의 우생학으로 간주된다. 즉 인간 향상이 국가나 제도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내린 선택의 결과라면, 비록 우생학적 시도로 간주 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시험관 아기의 시술 및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 배아에 대한 우생학적 선택이 가능한데, 주로 유전적 질환이나 장애를 찾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앞으로는 성별이나 머리카락과 눈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며 다양한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향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³⁷⁾ 델프와 릴리는 부모의 가난 때문에 장애를 가진 예이다. 델프는 싼값의 유전자 시술로 인해 청각 장애를 갖게 되었고, 릴리는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해 “홍측한” 얼룩을 가진 채 태어났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은 유전적 향상에 접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사회적

37)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119-131쪽.

불평등이 심화하고 유전적 향상에 따른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능한 과학자인 릴리는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아무런 병도 없으며 오직 뛰어난 특성들로만 구성된 삶을 선물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그녀의 유전자 배아 시술로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는 등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 신인류로 태어나지 못한 비개조인들은 지진으로 황폐화된 서부 도시로 밀려나고, 재앙 이후에도 피해가 없는 동부에는 배아 시술의 혜택을 입은 개조인들이 모여 사는 등 공간이 철저히 위계화된다. 신체의 결합과 인간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향상기술이 오히려 분리된 구획과 배제된 장소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취약성을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이 작품에서 인간향상의 결과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낳고 상당한 비용이 드는 향상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부정의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편 릴리는 자신의 클론 배아를 통해 올리브를 임신하게 되는데, 올리브가 자신과 똑같은 유전병을 가진 사실을 발견하고도 폐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존재에게 살아갈 권리가 부여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의 향상 기술을 비판하는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 및 존엄성의 근거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은 결국 인간성과 그에 입각한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샌델 또한 인간향상은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태도, 삶의 의미나 진정성,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적 도덕적 가치를 훼손될 것³⁸⁾이라고 우려한다. 즉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유전적 개입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릴리는 올리브에게 태어날 가치가 없다는 낙

38) 하버마스 또한 유전학적 개입은 자율과 평등의 자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세대에 걸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본연의 대칭적 관계를 파괴시킴으로써 인간의 윤리적 자기 이해의 전제조건을 변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상규, 위의 책, 148쪽.

인을 찍을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을 증오했지만 딸의 존재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릴리는 배아 디자인 연구를 그만두고 새로운 유전자를 연구한다. “얼굴에 흉측한 얼룩을 가지고 태어나도 팔 하나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는 세계, 아름답고 지성을 가진 신인류가 아니라 서로를 밟고 그 위에 서지 않는 신인류, 그런 아이들로만 구성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릴리에 의해 창조된 마을은 얼굴의 얼룩이 결함이 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 평온하고 행복한 공간이다. 그곳에서는 지속적인 갈등과 고통, 불행이 항상 상상의 개념으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이처럼 유토피아 같은 마을을 떠나 지구로 간 뒤 절반이나 돌아오지 않는다. 올리브는 릴리 다투드나를 추적한 끝에 지구에 남았다. 데이지 또한 지구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피에게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를 생각해본 적 있어? 시초지의 역사를 배우며 그렇게 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마을에서 자란 이들이 서로 연인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 지구로 내려간 우리는 그 다른 존재들을 만나고, 많은 이들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거야.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되겠지. 바로 그 사랑하는 존재가 맞서는 세계를, 그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탄으로 차 있는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억압받는 진실을. 올리브는 사랑이 그 사람과 함께 세계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 순례자들은 그들에게서 단 하나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찾아내겠지. 그리고 그들이 맞서는 세계를 보겠지. 우리의 원죄. 우리를 너무 사랑했던 릴리가 만든 또 다른 세계. 가장 아름다운 마을과 가장 비참한 시초지의 간극. 그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누군가와 함께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으리라는 사실을 순례자들은 알게 되겠지.(52-53쪽)

데이지는 성인식 때 순례를 다녀와 울고 있던 남자, 순례를 갔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죽게 된 그 남자와 함께 지구로 향한다. 올리브는 델피

와 지구에서 더불어 분리주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 유전자 조작과 향상에 의해 차별과 배제가 뚜렷한 지구에서 순례자들은 비탄과 고통, 차별과 혐오에 빠진 비개조인들의 취약함을 목격한 후 그들을 돌보며 취약한 세계를 바꾸기 위해 시초지에 남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돌봄은 일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과 슬픔처럼 부정적 감정은 물론 성애와 낭만적 감정마저 사라진 마을에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순례자들은 오히려 지구인들의 취약함 속에서 사랑과 연민을 배우게 된다. 이른바 취약함은 고통의 근원이지만 타인과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순례자들은 비개조인들을 혐오하고 억압하는 세계에 맞서 싸우는 연대를 실천한다. 이는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유토피아보다 취약하고 불완전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세계가 더 의미 있다는 상호의존의 윤리를 잘 보여준다. 델프와 올리브처럼 서로 의존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과 가장 비참한 시초지의 간극을 메꾸는 일이야말로 향상에서 소외된 취약성³⁹⁾

39) 매킨타이어는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이 인간 존재의 동물적 본성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로서 인간의 취약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몸의 본성은 취약성과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드러낸다. 인간은 취약성으로 인해 인생의 특정 순간이나 전시기 동안 타인들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매킨타이어에게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대한 인정은 현대 자유주의적인 사회에서 공동선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덕목으로 자리한다. 이재성, 「취약성의 윤리와 트랜스휴머니즘의 이상」, 『철학논총』 107집, 새한철학회, 2022, 190쪽. 토빈 시버스는 허약함, 취약함, 손상은 인간됨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특성이며, 결핍상태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능력이 감소했을 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고조의 신체적·정신적 힘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보편적 인권의 기초로서 몸과 마음의 허약함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인권의 출발점은 시민으로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허약함, 취약함, 장애가 권리를 배태한 지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표준이 되면 이 표준을 인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는 장애 권리를 인권의 완성을 위한 핵심으로 보면서

이 가르쳐주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능력과 의존성을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으로 삼고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로 여기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주체로는 상상할 수 없다. 요컨대 이 작품은 유전자 조작으로 몸을 변형시켜 아름답고 유능하며 질병이 없는 “신인류”를 꿈꾸기보다 불완전하고 다양한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꿈꾼다. 인간 존재를 향상하는 최선의 기술은 돌봄과 상호의존에 있는 것이다. 이는 순례자들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이자 포스트휴먼시대에 장애를 가진 몸의 취약함이 제기하는 윤리이기도 하다.

5. 결론

이상으로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장애의 재현 양상과 장애를 가진 취약한 몸이 제기하는 윤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이보그로 표상되는 기술과 신체 그리고 장애가 결합하는 측면과 장애 정치의 실현 과정에 주목했다.

먼저 김초엽의 소설은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정상성 규범과 치유폭력을 비판한다. 「인지공간」은 손상을 장애로 만드는 정상성이 사회문화적으로 다르게 구성됨을 보여준다. 이브는 연약한 신체 때문에 인류의 공동지식이 들어있는 인지 공간에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지 공간이 억압해온 개별적 기억과 진실을 기록하는 공간인 ‘스피어’를 창조한다. 스피어는 정상성을 담지한 인지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불구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프레모사」에서 유안은 의족을 단 사이보그인데 환지통에 시달리고 기계와 불화한다. 유안은 재활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하지만 결국 움직임과 멈춤의 위계가 전도된 프레모

이것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Tobin Siebers, 앞의 책, 320-324쪽.

사를 선택함으로써 치유폭력에 저항하는 반치유 서사를 보여준다. 「#cyborg_positive」에서 사고로 눈을 잃은 리지 또한 「프레모사」의 유안과 같이 인공눈과의 융합이 매끄럽지 않은 사이보그다. 그녀는 사이보그 긍정캠페인을 목표로 하는 아이보그사의 모델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장애를 교정하는 기술 장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찬양하지 않는다. 김초엽의 소설은 이처럼 장애의 비극성과 치유폭력에 저항하고, 기계와 신체가 불화하면서 발생하는 고통을 증언하면서 기술과 실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장애의 현실을 드러낸다.

한편 김초엽 소설에서는 기계와 불완전하게 의존하면서 불구화된 사이보그의 정치를 실현한다. 「로라」에서 로라는 세 번째 기계 팔을 다는 수술을 감행하는 트랜스에이블드로서 장애와 비장애의 전환을 평등하게 만드는 장애 정치를 행한다. 「마리의 춤」은 모그들이 크립 테크노 사이언스로서 플루이드라는 기술과 협상하고 서로 연대함으로써 장애 프라이드 운동을 벌인다. 마리는 전환의 방법으로 억압적인 비장애중심주의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장애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신체 감각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하게 만든다.

김초엽의 불구화된 사이보그는 장애 정치의 실현을 통해 트랜스휴먼의 이상이 가진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신화화된 사이보그를 비판하고, 정상성을 횡단하기 위해 신체의 고통을 삭제하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와도 다른 입장을 보인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장애를 지닌 취약한 몸이 제기하는 상호의존의 윤리를 강조한다. 「선인장 끌어안기」에서 소영과 파히라는 접촉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공유한다. 그들은 수평적 정체성을 지닌 채 서로 의존하면서 돌봄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소영의 죽음을 통해 파히라는 고통이 곧 사랑이라는 알게 된다. 인간 존재를 향상하는 기술은 보조장비와 돌봄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상호의존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는 장애와 인간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향상 기술이

불평등과 부정의라는 사회적 취약성을 초래한다. 순례자들은 유전자 기술을 받지 못한 비개조인들의 취약함을 목격한 후 그들을 돌보기 위해 지구에 남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배우게 된다. 이른바 취약함은 고통을 야기하지만 타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비개조인들을 억압하는 세계에 맞서 싸우는 연대를 실천하는데, 이는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유토피아보다 취약하고 불완전해서 서로 돌보는 세계가 더 의미 있다는 상호의존의 윤리를 잘 보여준다. 이른바 연약함과 취약함을 응시하고 상호의존에 의해 손상된 몸이 있는 그대로 세계를 경험하고 존중받기를 꿈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의 이상에서 나아가 포스트휴먼 시대에 장애를 가진 몸이 증언하는 취약함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초엽,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 _____, 「마리의 춤」, 『방금 떠난 세계』, 한겨레, 2021.
- _____, 「프레모사」, 현대문학, 2021.
- _____, 「로라」, 『방금 떠난 세계』, 한겨레, 2021.
- _____, 「#cyborg_positive」, 『행성어 서점』, 마음산책, 2021.
- _____, 「선인장 끌어안기」, 『행성어 서점』, 마음산책, 2021.
- _____, 「인지공간」, 『방금 떠난 세계』, 한겨레, 2021.

2. 단행본

- 김원영·김초엽,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옮김,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2022.
- 수나우라 테일러, 이마즈 유리·장한길 역,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 봄, 2020.
- 수전 웬델, 황지성·김은정 역, 『거부당한 몸, 그린비』, 2013.
-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 신상규·이상욱·이영의 외,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아카넷, 2023.
- 엘리슨 케이퍼,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 봄, 2023.
- 어맨다 레덕, 김소정 역,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을유문화사, 2021.
- 에바 페더 키테이, 김준혁 역, 『의존을 배우다』, 반비, 2023.
- 일라이 클레어, 하은빈 역, 『눈부시게 불완전한』, 동아시아, 2023.
-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아카넷, 2016.

-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딧세이』, 휴머니스트, 2019.
- Ronald J. Berger, 박승희 외 역, 『장애란 무엇인가』, 학지사, 2016.
- Susan Baglieri · Priya Lalvani, 박승희 외 역, 『비장애중심주의를 넘어』, 피치마켓, 2023.
- Tobin Siebers, 조한진 외 역, 『장애이론』, 학지사, 2019.

3. 논문

-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77-107쪽.
- 신상규, 「포스트휴먼 담론과 SF의 포스트휴먼 서사」, 『교양교육과 시민』 4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21, 33-66쪽.
- 이재성, 「취약성의 윤리와 트랜스휴머니즘의 이상」, 『철학논총』 107집, 새한철학회, 2022, 185-199쪽.
- 최일섭,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비전과 소수자의 역습」, 『인문학연구』 66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141-181쪽.
- 최새훤, 「크립사이보그(crip-cyborg)로서의 장애 신체·정신- 김초엽의 「로라」, 『프레모사』, 『파견자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68집, 반교어문학회, 2024, 257-279쪽.
- 하대청, 「휠체어 탄 인공지능: 자율적 기술에서 상호의존과 돌봄의 기술로」, 『한국과학기술학연구』, 19권 2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169-206쪽.
- 황지선, 「장애-사이보그: 불화의 상상력과 타자-되기의 윤리」, 『한국문예창작』 21권 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179-202쪽.
- 임지영, 「모든 사람에게 사이보그 속성이 있다」, 『시사인』, 2019.9.24.
<<https://www.si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55>>
(2025.3.23.)

<Abstract>

Disability Politics and the Ethics of Vulnerability in Kim Cho-Yeop's Novels

Eom, Mi-ok*

Kim Cho-yeop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thought experiments with her science fiction, focusing on the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disabilities and the experi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 between disabilities and technologies based on the patterns of disabilities in Kim Cho-yeop's science fiction and further delved into disability politics and the ethics of vulnerability revealed through cyborg images.

“Space of Cognition” shows how normality to turn damage into a disability is composed differently in society and culture with Eve who cannot enter a space of cognition due to her physical conditions. In *Mremosa*, Yu-an makes a successful comeback after rehabilitation but ends up choosing Mremosa where the hierarchy of leap and stop is reversed, resisting the violence of healing. By telling such anti-healing narratives, the author criticizes ableism and shows alternative possibilities to live in the present with a disabled body.

Kim Cho-yeop's Science Fiction realize the politics of crippled cyborgs with her characters who have incomplete dependence on machines. In “Laura”, Laura does disability politics to make a switch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equal as a transabled. In

* Sogang University.

“Marie’s Dance”, Mogs engage in a movement of pride in disabilities by negotiating with the Fluid technology and making alliances with each other. In this novel, disabled cyborgs are not mythified cyborgs that implement transhuman optimism and are different from Haraway’s cyborgs that delete physical pain to cross normality.

Finally, “Hugging a Cactus” and “Why Did Not Pilgrims Come Back” contemplate the ethics of interdependence by depicting a world in which characters with disabilities and no disabilities and also disabled people and non-disabled people love and take care of each other. Kim Cho-yeop looks at the vulnerability of human beings rather than technologies to enhance people and wishes that individuals with various bodies will experience the world as it is based on interdependence. It is ethics raised by the vulnerability of bodies with disabilities in the posthuman era.

Key Words: disability, disability politics, crip, cyborg,
violence of cure, vulnerability, interdependence.

■ 논문접수 : 2025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20일

